

종이 죽을 利用한 作品 制作

尹 明 老

西洋畫科 教授

차례

- I. 머릿말
- II. 종이의 文化的 背景
- III. 얼레지—量輪
- IV. 종이 죽
- V. 맷는 말

I. 머릿말

종이를 단순히 作家의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傳達하기 위한 表面으로서 생각해 왔던 전통적 관념이나 表現領域에서 벗어나 최근 종이는 그 자체가 表現의 중요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종이의 日常的 機能性이나 단순히 종이에 그리거나 찍는다는 表現性을 훨씬 뛰어넘는 종이의 精神的 用途와 機能的 用途의 융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작가가 직접 종이를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종이를 사용하든간에 작품의 대부분은 종이 그 자체의 性格과 本質에 의해서形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이를 素材로 그동안 追求해 왔던 일련의 作品을 中心으로 종이와의 만남을 통하여 造形性을 탐색하고 종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II. 종이의 文化的 背景

종이란 一般的으로 纖維物質을 手工業의 方法이나 機械的의 方法으로 分離시켜 이를 水槽에 담근 다음 通氣性를 위에 펼쳐서 만든 索은 組織이라고 定義된다. 종이의 發生過程을 歷史적으로 考察해 보면 大麻와 모시풀의 섬유로 만든 종이가 처음으로 中國에서 기원전 140~87년에 만들어졌으나 그 記錄이 不明하다. 製紙廳을 설치하고 정식으로 종이다운 종이를 生產한 것은 西紀 105年 後漢의 蔡倫에 의해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이의 製紙技術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그 정확한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2~3世紀頃 中國의 漢朝가 北쪽의 遊牧民을 장악하기 위해서 古朝鮮의 西北地域을 정복했던 시기로 보고 있으며, 佛教가 4世紀頃 이땅에 傳來된 이후 佛教僧侶들이 中國과 印度를 왕래하면서 中國의 製紙技術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記錄에 의하면 西紀 610年 高麗僧 曇徵이 製紙技術을 日本에 소개한 것이 韓國에 종이가 傳來된 원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韓國으로부터 佛教가 日本에 전해진 시기와 매를 같이 하고 있다. 이후 韓國의 佛教徒들은 中國과 印度의 佛經을 筆寫하고 이를 印刷하는 것을 포함하여 製紙工程에 새로운 開發을 追求했고 종이의 技能的 用途가 多樣化 되었다.

우리 나라의 製紙技術은 종이의 強度, 유연성, 半透明性 등에서 뛰어난 발전을 이루하였고 大麻와 닥나무(楮)가 그 주종을 이룬다. 用途에 있어서는 溫突을 도배하는 장판지, 窓門을 바르기 위한 창호지, 종이를 꼬아서 엮어 만든 옷칠한 종이 함, 심지어 紙襪에 이르기까지 機能的, 審美的, 또는 精神的 用途를 위한 것들이 物活論의 儀式主義를 바탕으로 日常生活과 統合되었다.

종이를 사용하는 技法과 종이의 製作工程은 지난 10여년 동안에 종이의 옛 領域을 훨씬 뛰어넘어 신성한 物質로서의 용도와 物性에 관련하여 종이 자체의 性格과 本質을 많은 作家들이 새로운 表現 領域으로서 그 可能性을 擴大시켜왔다.

III. 얼레짓—量輪

얼레짓은 80年代에 들어서면서 출판本人의 作品命題였으며 東과 西의 對位的 價值體系와 兩義的인 世界를 畫面에서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相補的인 世界를 表象化하려는 努力이었다. 얼레짓은 日常的인 用語에 짓이라는 助語를 붙여 만든 말로 命題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과 있으려는 것의 兩義性을 表現의 秩序 속에 合一시킴으로써 하나의 現象을 相補的인 關係 속에 묶어두는 試圖로서 그동안의 作品들이 脈絡을 같이해 왔다. 이를테면 材料의 二分法에 따른 東西의 問題라든지 材料의 地域性에 따르는 認識의 차이를 自然主義의 發想들을 근간으로 하여 意識的으로 表現材料의 문제들과 對應시킴으로써 二分法으로 超克하려고 했다. 얼레짓 원작에서 그동안 主種을 이룬 材料들은 編布와 Acrlyic, 墨, 彩色(水性顏料) 등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다루워왔던 油彩나 亞麻의 不包和性 材質로부터의 意識的인 脱皮하기보다는 反復的 行爲에 對한 反作用 또는 自然스러운 因習으로부터 기인된 하나의 만남이다. 表現의 素地를 水溶性의 材料인 編布로 한 것은 지극히 自然스러운 만남이었으며 뚜렷한 意圖性은 없다. 그러나 水溶性에 의한 너그럽고 진솔한 行爲의 軌跡과 表情들이 스스럼없이 編이라는 物性과 맞닥드림으로써 材料의 二分法을 훨씬 뛰어 넘게 된다. 아울러 오랜 傳統에서 기인된 過去의 回想을 살아 움직이고 있는 現在라는 狀況 속에 存立케 함으로써 存在의 當爲性을 찾으려 했다.

綿은 기실 짓이라는 漢字 곧 紙의 糸部와 編의 糸部가 一致되는 同質性의 의미를 内包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編의 素地로부터 紙의 素地로 移行하면서 製作하게 된 일련의 作品들이 들어내 보이는 自然스러움과 脈絡을 같이 한다. 특히, 本論文에서 종이죽을 利用한 作品들은 종이의 中間材인 종이죽을 직접 利用함으로써 종이의 機能性과 精神性을 追求할 수 있었다.

IV. 종이 죽

우리 나라에서 傳統的으로 傳來되어 온 韓紙의

原料는 주로 닥나무(楮 broussonetia papyrifera), 大麻(musa-textilis), 雁皮(wick-Stroemia sonescens) 등의 纖維가 사용되어 왔다. 특히 닥나무를 原料로 하는 종이죽 또는 종이의 製造過程은 잔가지를 제거한 적당한 길이의 닥나무 달빛류음을 가마솥에 넣어 껌낸 다음, 껌질을 벗겨 말린 黑皮를 다시 물에 담그어 부드럽게 한 걸 껌질을 벗겨서 白皮를 만든다. 종이죽은 이 白皮를 물에 담그어 불린 다음 소다灰나 灰石를 첨가하여 蒸解하고 異物質을 제거한 다음 咬解(beating)한 것이다. 咬解는 白皮를 절구통에서 찡거나 넓은 돌이나 나무판위에 놓고 방망이 등으로 두드려서 한다. 咯解한 原料는 抄紙函에 옮겨 물로 희석시킨 다음 植物性粘物質인 닥풀을 첨가하면 종이죽(紙料)이 된다. 닥풀은 주로 黃蜀葵의 뿌리에서 추출한 植物汁糊料로서 韓紙를 싸이징(sizing)할 때 사용된다. 닥풀은 韓紙의 강도, 굳음, 광택 등에 크게 作用하여 流抄式抄造法에 活用되고 있다. 韩紙의 抄造法에는 紙料를 조합할 때 닥풀을 첨가하고 폐가 없는 抄簾으로 紙料를 떠올려 압착, 탈수시켜 한장씩 틀어내고 전조시키는 流抄式과 닥풀을 사용하지 않고 폐가 있는 틀에 끼워진 簾을 사용하여 紙料를 떠올려 고루 편 다음 그대로 전조시키는 溜抄式이 있다. 流抄式에 의한 韩紙는 強度가 좋으며 溜抄式에 의해서 製造된 韩紙는 두껍고 수분 흡수가 빠른 特수성을 지닌다.

V. 맷는 말

作品 鎏紙 85-827과 85-828은 製材所에서 購入한 직경 70cm 두께 10cm 크기의 통목에 얼레짓의 이미지를 끌로 새기고 그 위에 流抄式에 의한 종이죽을 사용하여 떠낸 作品이다. 일종의 cast paper의 方法을 취했으나 종이죽의 物性이 주는 유연성과 굳은 뒤의 견고성 및 은근성은 表現性의 問題를 훨씬 뛰어 넘는 效果였다. 咯解는 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咯解의 정도에 따르는 纖維質의 투명성, 응고성 및 強度等은 실제 作品의 對應方式에 따라 그 效果가 여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종이죽을 溜抄式에 의해서 펼쳐 만든 素地위에 그린 얼레짓—종이 881014

는 水溶性 물감의 흡수가 빨라 실제로 制作速度
의 일관성이 要求되었으며 流抄式에 의해 제작
된 素地 위에 그런 열레짓—종이 881020은 분
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알맞은 습기와 水溶性 물
감을 對應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두 作
品外에 예시작품 모두는 sizing에 의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두들겨서 만든 手工的인 方法에 依
한 素地였기 때문에 素地자체의 物性이 너무 강
하게 들어나 보이는 결함이 있었으나 오히려 여
지껏 맛보지 못한 종이의 매력, 나아가 기나긴
세월동안 우리에게 던져진 종이의 정신적 기능
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을 느꼈다.

結論的으로 作品製作을 위해서 어떤 종이를
또는 어떤 工程을 選擇하느냐 하는 따위의 사소
한 方法的 결정사항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니
다. 종이의 精神的 用途와 經濟的 用途가 융화
를 이룬 종이가 일단 表現의 代用物로서의 역할
을 벗어나면 그 自體가 엄청난 潜在力を 지닐뿐
만 아니라 個人的 先入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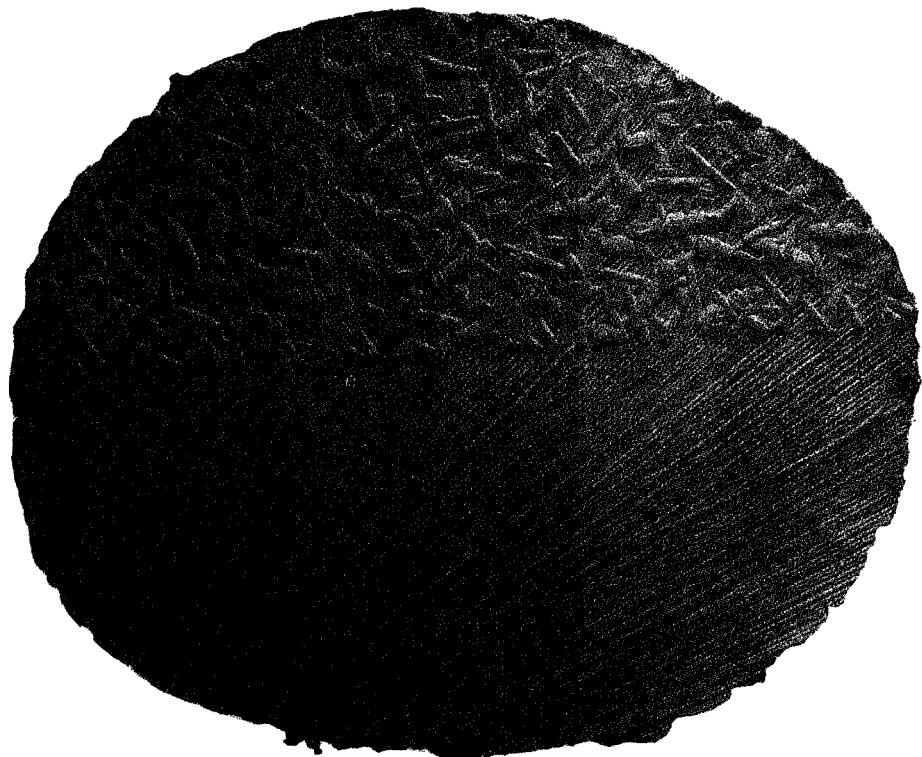
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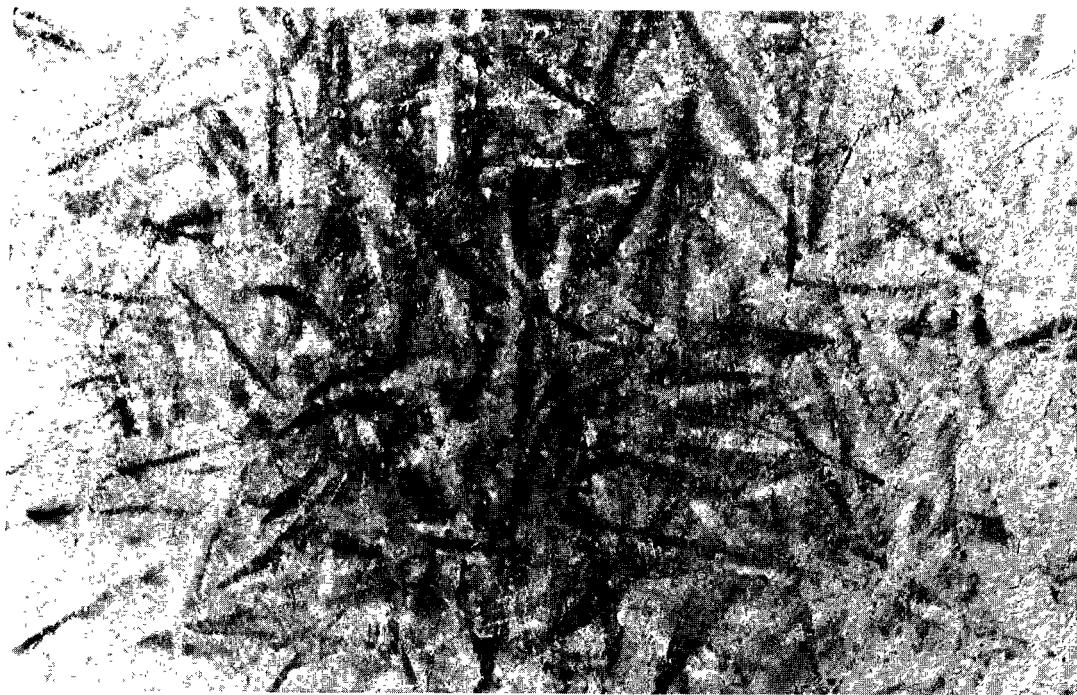
- 종이의 製造理論과 應用／金舜哲 著。
中國造紙技術史稿／文物出版社／北京。
Art and Collaboration／Gemini G.E.L.／Abbeville
Art Povera／Germano Celant
Handmade Paper／Eshiro Abe／N.Y.
Museum of Contemporary Crafts, 1976.
Inovative Printmaking／Thelma R. Newman／
Crowns
New American Paper Works／World Print
Council, 1983.
Paper Making／Julies Heler／N.Y. Watson-Guptil Publication, 1978.
With Paper About Paper／Charlota Kotik／
Albright-Knox Art Gallery,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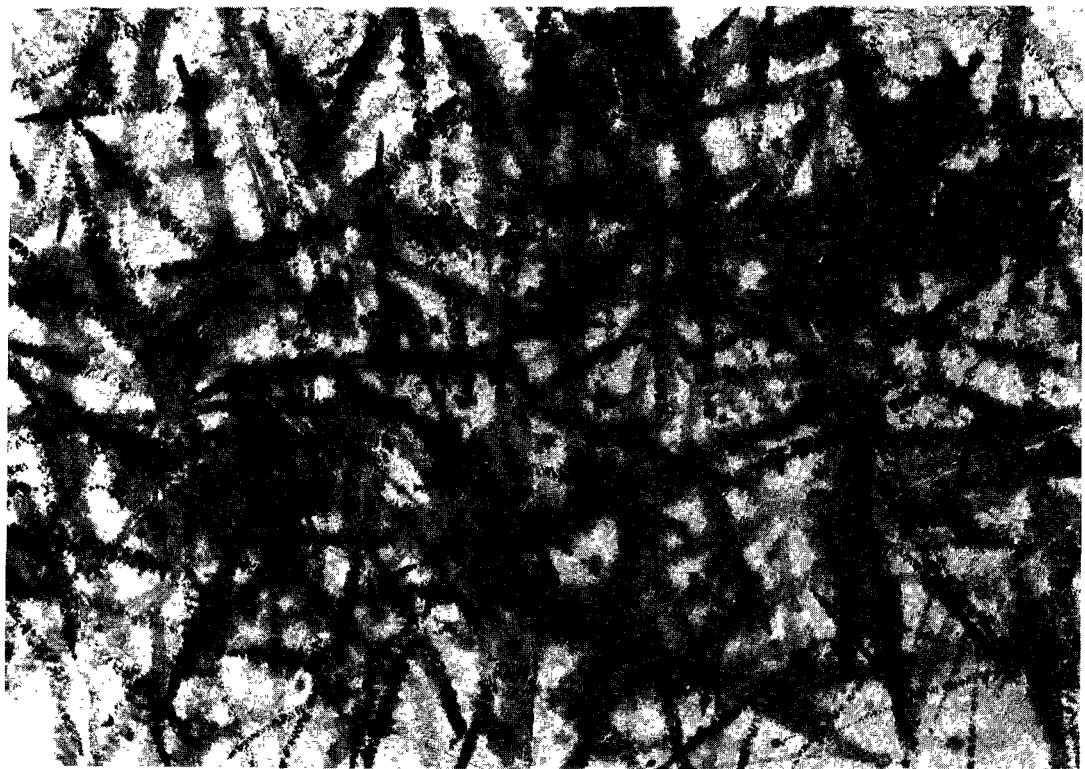
鑄紙 85-827 ヨガ 62×72cm



鑄紙 85-828 ヨガ 62×7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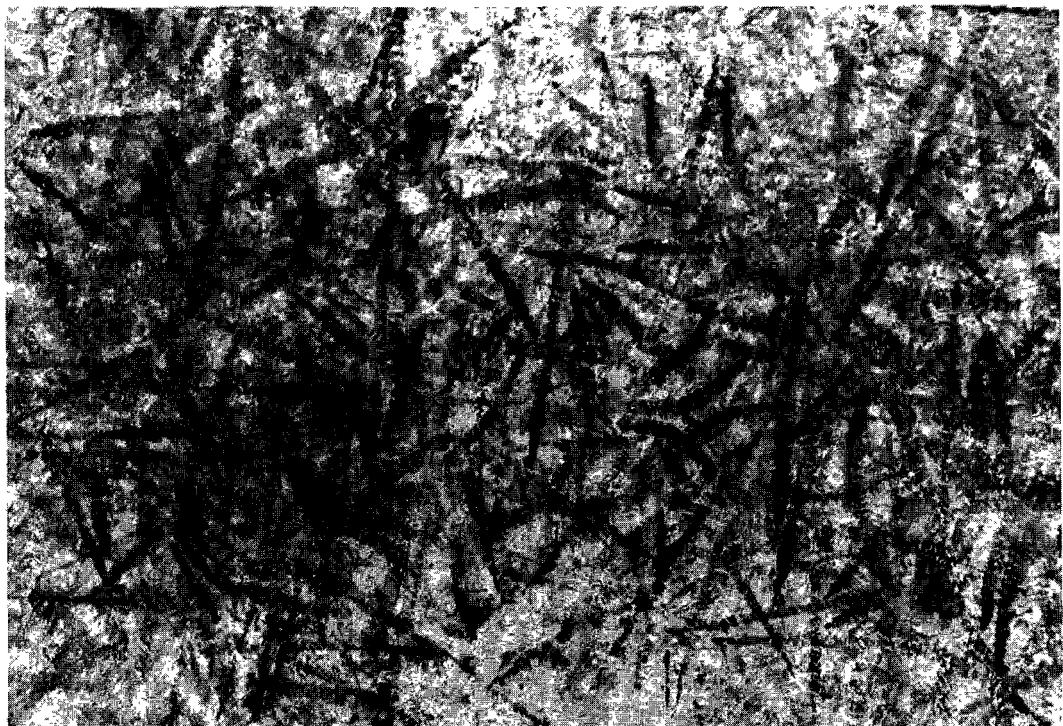
얼레지 종이—881020 닥종이 위에 아크리, 수묵 115×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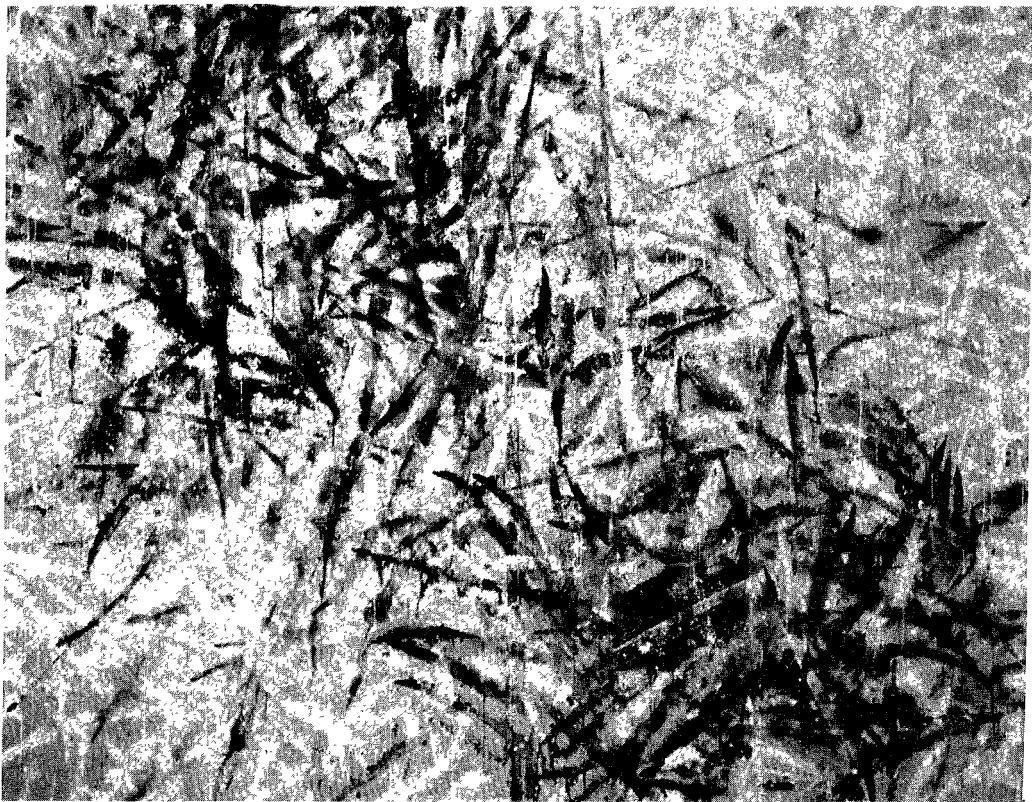
얼레지 종이—881014 닥종이 위에 아크리, 수묵 130×180cm



얼레지 종이—881025 탁종이 위에 아크릴, 수묵 120×180cm



얼레지 종이—881010 탁종이 위에 수묵 120×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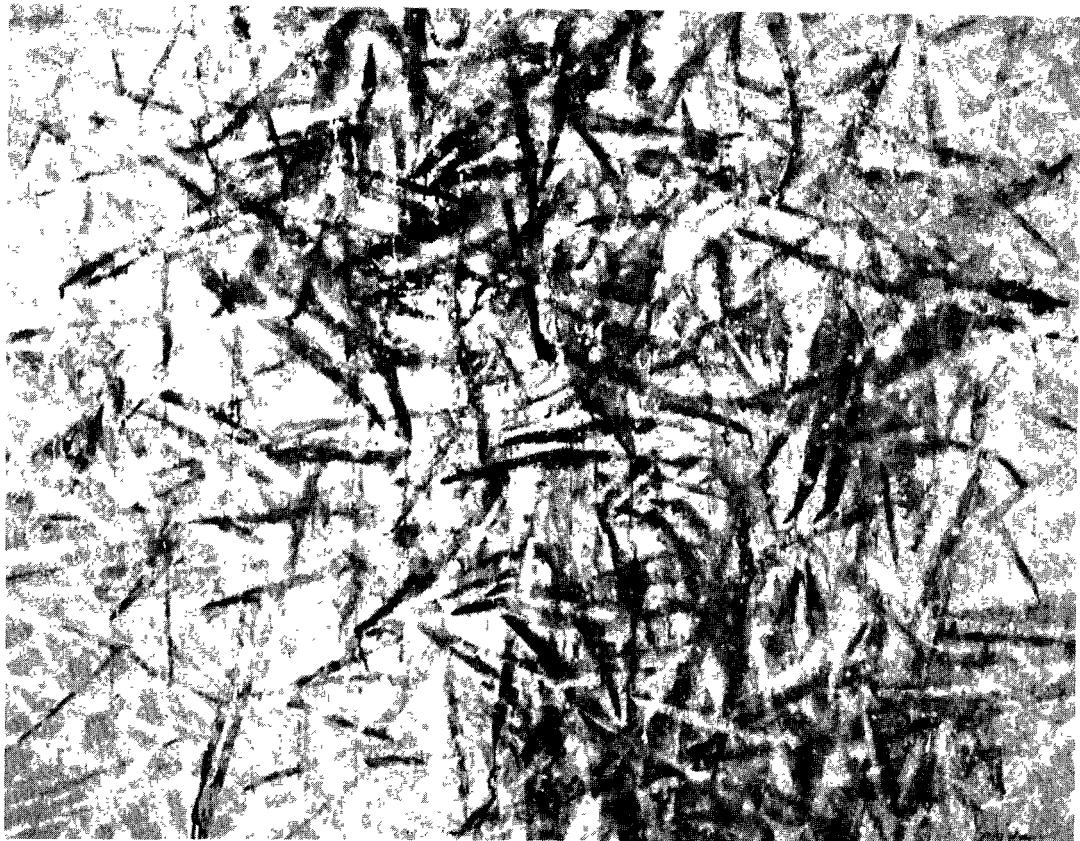
일레지 - 輪 88225 아크리, 채묵, 繡布 132×162cm



일레지 輪 88-301 아크리, 채묵, 繡布 150×220cm



얼레지—量輪 88-115 아크릭, 채묵, 縹布 162×132cm



얼레짓一量輪 88-220 아크릴, 채묵, 縢布 132×162cm



얼레짓一量輪 87-818 아크릭, 채묵, 縢布 179×300cm